

# 천덕꾸러기 된 '평화의 상징'



### 배설물, 주택·차량 부식 피해... 깃털 세균, 아토피 등 유발

### 아파트 발코니·에어컨 실외기에 등지...비둘기 퇴치 민원 쇄도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쫓기는 새가 되었다...”(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가)

근 도심에 숲이 우거지고 먹이 구하기가 쉬워지는 등 비둘기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체수가 매년 5~10%가량 늘고 있다.

비둘기는 때로 모여다니면서 배설물에 냄새까지 피해를 주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중 가장 큰 골칫덩이는 배설물. 배설물이 강산성을 띄고 있어 천막·건축 외장재·차량 등에 묻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배설물에 의한 피해는 공원 주변의 문화제나 주택, 차량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최

문제다. 알레르기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심 비둘기는 몸집이 닭만큼 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닭둘기'라고 불리는데, 오히려 비대한 몸과 새빨간 눈망울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다니는 상황이다.

각 구에선 비둘기를 퇴치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원 내 먹이주기 금지와 와이어 설치 등 비둘기의 증식과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서식지를 잃은 비둘기들이 인근 아파트 발코니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A아파트 박모(여·30)씨의 아파트 발코니와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 동지를 틀고 알 2개를 낳은 뒤 암수 컷이 교대로 알을 품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엔 북구 일곡동 B아파트

에 사는 김모(여·32)씨의 발코니 화단에 비둘기 한 마리가 새둥지를 트는 등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에 불청객(?)이 찾아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 김씨는 “심한 악취에 깃털까지 날린다. 비둘기들이 물고 온 철사·페비닐·나뭇가지 등으로 발코니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라며 “쫓아내도 동지를 떠나지 않는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각 구청마다 여름철 비둘기 퇴치 민원이 100건 이상 달하지만 지자체 역시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일각에선 비둘기 먹이에 불임제를 섞어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공원 등 내에서 먹이주기를 원천 금지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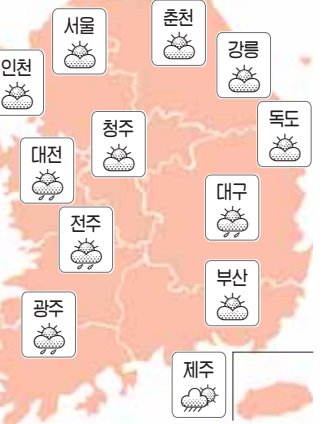
해돋이 06:01 해질 19:06  
출몰 17:50 월출 03:58

### '후두독' 소나기 주의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 5~20mm.

###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소나기  | 21/29 | 보성  | 구름많음 | 19/27 |
| 목포 | 구름많음 | 21/27 | 순천  | 구름많음 | 21/29 |
| 여수 | 구름많음 | 22/26 | 영광  | 비오뒤맑 | 21/28 |
| 나주 | 소나기  | 21/29 | 진도  | 구름많음 | 20/28 |
| 완도 | 구름많음 | 21/28 | 진주  | 소나기  | 20/28 |
| 구례 | 소나기  | 19/29 | 군산  | 소나기  | 20/27 |
| 강진 | 구름많음 | 20/27 | 남원  | 소나기  | 18/27 |
| 해남 | 구름많음 | 20/28 | 홍산도 | 구름많음 | 21/25 |
| 장성 | 소나기  | 20/28 |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해    | 남서~서 | 0.5     | 남서~서 | 0.5     |
| 남부 | 남해    | 서~북서 | 0.5~1.0 | 남서~서 | 0.5~1.0 |
| 남해 | 남해    | 남서~서 | 0.5     | 남서~서 | 0.5     |
| 남해 | 서부    | 남서~서 | 0.5~1.0 | 서~북서 | 0.5~1.0 |
| 서부 | 남해(사) | 남서~서 | 0.5~1.0 | 남서~서 | 0.5~1.0 |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운동  | 40 |
| 빨래  | 50 |

### 돌매

| 목포 | 밀물    | 썰물    |
|----|-------|-------|
|    | 00:42 | 06:17 |
|    | 12:47 | 18:20 |
| 여수 | 밀물    | 썰물    |
|    | 07:44 | 01:49 |
|    | 20:26 | 13:45 |

### 주간 날씨

| 29(토) | 30(일) | 31(월) | 9/1(화) | 2(수)  | 3(목)  | 4(금)  |
|-------|-------|-------|--------|-------|-------|-------|
|       |       |       |        |       |       |       |
| 20/29 | 21/29 | 21/29 | 22/27  | 22/29 | 22/29 | 21/29 |

## '양심적 병역거부' 오락가락 판결

### 대법선 유죄...하급심에선 무죄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낳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의 처벌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역 입영대상자인 안씨는 2014년 3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이야기 꽃피는 '왕골 작업장'

27일 함평군 월야면 외세마을 정자에서 주민들이 갓 수확한 왕골 겹질을 벗기고 있다. 왕골은 한해살이 풀로 잘 말린 뒤 돗자리 또는 베개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 에스컬레이터 사고자 절반이 60대 이상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상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에스컬레이터 사고 399건이 발생해 총 55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망자가 8명에 중상자 403명으로 경상자도 143명이다.

사상자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269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50대

109명(19.7%), 40대 52명(9.4%), 10세 미만 46명(8.3%)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고려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위험이 10대의 13배, 30대의 5배에 해당한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399건의 사고 중 80%에 해당하는 315건이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났고, 넘어진 원인은 '불안정한 자세'와 '걸다가 미끄러짐'이 각각 151건(48%)과 144건(46%)으로 집계됐다.

## 광주·전남 퇴직교원 810명 훈·포장

광주·전남도 교육청은 이달 말 퇴임하는 광주 238명, 전남 572명 등 총 810명의 교원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전수식은 모두 28일 오전 10시·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명단 22면> 김병식 전 초당대 총장 등은 정조근정훈장(대학총장 특별추천)을, 광종원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56명은 황조근정훈장(재직연수 40년 이상), 이종하 조선대부중 교장 등 133명은 홍조근정훈장

( $\approx$  38년 이상), 송기인 대성여중 교장 등 203명은 녹조근정훈장( $\approx$  36년 이상), 김정옥 광주세광고 교장 등 259명은 옥조근정훈장( $\approx$  33년 이상)을 받는다. 또 박판우 송덕고 교장 등 115명은 근정포장( $\approx$  30년 이상)을, 주재수 전남여성 교감 등 14명은 대통령 표창을, 박은미 일곡초 교감 등 20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이희정 월계중 교감 등 10명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대한변호사협, 수입 제한 위반시 중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입 제한 규정 위반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숨방망이' 징계를 비롯하여 위반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 징계 대신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월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이다.

변호사협회 규정은 외부의 판사,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변협 회장은 이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징계 양정은 회장 재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 구분   | 다이렉트1    | 다이렉트2    | 퍼펙트(법인)  | 프라임      |
|------|----------|----------|----------|----------|
| 총액   | 3600     | 1050     | 1600     | 950      |
| 통장보증 | 3000     |          |          |          |
| 입회금  | 600      | 1050     | 1600     | 950      |
| 이용기간 | 5년 180회  | 5년 180회  | 5년 280회  | 5년 140회  |
| 이용횟수 | 월4회 년36회 | 월4회 년36회 | 월6회 년56회 | 월3회 년28회 |
| 회원등재 | 본인+무기명   | 본인+무기명   | 본인+무기명3  | 본인+무기명   |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

#### 직원모집

- 골프 유경험자 우대
- 나이 성별 제한없음
- 골프장 선불회원권 컨설팅
- 근무지: 광주/순천